

# 明末 王思任의 山水遊記 小品文의 特色\*

— 《游喚》을 중심으로 —

金 元 東\*\*

— <目 次 —

I. 머리말	2. 表現的 側面
II. 山水遊記 小品文의 特色	III. 맺음말
1. 內容的 側面	

## I. 머리말

많은 小品文이 明末에 창작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山水遊記 小品文을 가장 으뜸으로 친다. 산수유기가 당시 산문 문학의 흐름을 주도하고 문학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일 터이다. 여행과 유람이 유행처럼 번졌던 이 시대에 문인들이 유기를 쓰는 일은 자연스런 행위였고, 그것은 또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袁宏道를 대표로 하는 公安派 작가들을 필두로 명말의 작가들 가운데 이런 유기 소품문 창작에 주목하지 않은 작가는 없었다. 왕사임 역시 그런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산수유기 소품문 작가들 중에 그는 독특한 색깔의 작품 창작으로 높이 평가되었고, 《游喚》이 바로 그것이다.<sup>1)</sup>

\* 이 논문은 2004년도 교내학술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嶺南中國語文學會 主催 2004 年度 下半期 全國學術大會 發表論文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어문학부 부교수

1) 拙稿, <明末 王思任의 삶과 文藝觀 그리고 山水遊記集 《游喚》>, 《中國語

《游喚》은 왕사임의 산수유기 소품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의 모음집이다. <東山>, <剡溪>, <南明>, <天姥>, <天台>, <雁蕩>, <孤嶼>, <華蓋>, <仙巖>. <石門>, <小洋>, <仙都>, <釣臺> 13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는 이 《유환》에 대해 왕사임은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세속에 매몰되어 신선함을 잃지 않기 위함’<sup>2)</sup>이라고 창작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편협하고 갇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개방적이고 트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는 태도와 세속에 감염되지 않고 늘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왕사임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작품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환》에 수록된 왕사임의 산수유기 소품문은 이 시대 글쓰기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비중 있는 작품들이다. 산수자연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글로 쓰는 데 있어 왕사임은 분명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왕사임의 이런 특색을 읽어내기 위해 《유환》의 개별 작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의 분석 대상은 13편 중 11편으로, <천태>, <안탕> 두 편은 소품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장편이라 제외하였다.

## II. 山水遊記 小品文의 特色

### 1. 內容的 側面

#### ㄱ. 自我 意識의 擴大

반쪽만 남은 석양. 마치 연지색이 막 불에서 나온 듯하다. 계곡 서쪽 일

文學誌》, 제15집, 中國語文學會, 2004년. 6, 158-164쪽 참조.

- 2) <游喚序>(王思任 撰 《游喚》, 《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91 년 “天之下三山六水, 土處一焉, 一土之中, 蠕蠕攘動, 以盡其疆場, 是惡能破蜂之房而出蟻之穴耶. 台蕩諸山, 乃吾鄉幾案間物 今年始得看盡 歸以語人, 疑信相半 彼其眼足在胸中自立一隔扇耳. ...卻詵言山行一度, 洗盡五年塵土腸胃, 吾欲七千由旬中, 賢者共識其大, 無被塵土竟埋其眼足也, 作《游喚》”

대의 산은 모두 앵무새 깃털처럼 푸르고, 까마귀 등처럼 검다. 그 산 위에는 한 없이 펼쳐진 선홍색의 구름이 떠 있고, 큰 구멍 하나가 뚫려 있다. 그 사이로 얼굴을 내민 담청색의 하늘은 물에 비치어, 비단에 붉은 瑪瑙가 펼쳐진 듯 하다. 날이 더 어두워지자 모래사장은 연한 남색과 흰색 빛을 띠고, 맞은편 언덕의 모래는 갈대꽃과 달빛으로 금방 어슴푸레하다. 산은 심청색의 오이 깍질 색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또 잘리고 부서진 거위 털 모양의 일여덟 조각의 노을은 황금과 荔枝 같은 색이었다. 이것이 두 점의 구름 덩어리로 뭉쳐지더니 뜻밖에도 수정처럼 투명한 자줏빛 포도색을 띠는 것이었다. 또 밤안개가 층층이 고기의 뱃살처럼 하얗게 불쑥 일어나더니 은홍색의 화로를 뚫고 들어갔다 나온 듯, 금빛으로 반짝 거렸다. 이 무렵이면 천지산천과 구름과 햇빛이 달귀지고, 증발되고, 엉키고 하여 서로 돋보일 때, 그렇게 큰 규모의 색채로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바다의 신기루를 시기하고, 번개를 능멸하고 싶어 이 아름다운 색채의 구름을 슬쩍 한 번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이 ‘가슴 실레며’, ‘찢어질 듯이 크게 눈을 뜨고’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들에게 글재주를 빌려주어 천지산천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한 것인지? 이 얼마나 신기한 세계인가! 무릇 인간의 색채는 겨우 다섯 가지이고, 이 다섯 가지가 섞여도 수십 가지 정도로 확대될 뿐이니 이같이 불가사의한, 변화무쌍하고 환상적인 색채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내가 색 이름을 말할 때, 동일한 사물의 색을 빌어 사용했는데, 역시 인간 세상에 있는 사물들로부터 색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잘 알고 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전달하고 알려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슷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오호라! 천지의 부유함을 살피지 않고, 어찌 인간의 빈곤함을 알 수 있으랴!<sup>3)</sup>

3) 王思任 著, 위의 책, 23-24쪽, “落日含半規, 如曠脂, 初從火出, 溪西一帶山, 俱似鸚鵡綠鴨背青. 上有腥紅雲五千尺, 開一大洞, 逗出縹天, 映水如綉鋪赤瑪瑙, 日益矐, 沙灘色如柔藍解白, 對岸沙則蘆花月影, 忽忽不可辨識. 山俱老瓜皮色, 又有七八片碎剪鵝毛霞, 俱金黃錦荔, 堆出兩朵雲, 居然晶透葡萄紫也. 又有夜嵐數層鬪起, 如魚肚白, 穿入出鑪銀紅中, 金光煜煜不定. 蓋是際天地山川, 雲霞日采, 烘蒸鬱纈, 不知開此大染局作何制. 意者妬海蜃, 凌阿閃, 一漏卿麗之華耶. 將亦謂舟中之子, 既有蕩胸決眦之解, 嘗試假爾以文章, 使觀其時變乎, 何所邁之奇也. 夫人間之色, 僅得其五, 五色互相用, 衍至數十而止, 焉有不可思議如此其錯綜幻變者, 曩

K C I

---

吾稱名取類，亦自人間之物而色之耳，心未曾通，目未曾觀，不得不以所觀所通者達之于口，而告之於人。然所謂彷彿圖之，又安能彷彿以圖其萬一也。嗟乎，不觀天地之富，豈知人間之貧哉！”

위는 <小洋>의 한 부분으로 일몰의 광경 묘사이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비유와 언어를 동원하여 그 묘사가 다채롭고 섬세하다. 일몰로 인하여 산과 강 구름과 안개 등 주변의 사물들이 변화하면서 나타내는 그림과 같은 모습, 이 아름다운 광경을 마치 눈앞에 펼쳐진 한 폭의 유화처럼 감각적이고도 생동감 넘치게 그려놓는다. 왕사임은 대자연의 이 불가사의한 광경 앞에 도대체 조물주가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가슴 설레며’, ‘찢어질 듯이 크게 눈을 뜨고’ 자연을 감상하려는 작가의 마음을 알아 준 조물주가 이 기이한 천지자연의 변화를 관찰해보려고 자신에게 글재주를 준 것인지, 왕사임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찬찬히 짚어본다. 이런 신비한 자연현상을 단지 심미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화 하는 작업을 왕사임은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연을 감상하고 즐길 뿐 아니라, 자연을 읽고 해석하며, 자신이 느낀 주관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의 ‘오호라! 천지의 부유함을 보지 못하고, 어찌 인간의 빈곤함을 알 수 있으랴!’는 인간세상에서는 결코 빛을 수 없고, 재현해낼 수도 없는 자연의 색채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과 오묘함을 일깨워 주는, 왕사임이 자연세계의 섬세한 관찰로부터 터득한 자신만의 깨달음인 경구인 셈이다.

심미의 대상으로, 관찰의 대상으로,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친구처럼 격의 없이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왕사임은 자연을 바라본다. 자연의 신비함에 머물지 않고 그 신비함을 해석하고 벗겨내듯, 자연은 먼 곳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고, 가까이 보다 더 가까운 곳으로 내려 와 있는 것이다. <華蓋>의 한 부분을 보자.

華蓋山이 나를 시기할 수는 있다 해도 비바람 치는 화개를 보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날마다 화개산의 정수리를 밟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웃고, 욕하고, 술에 취하면 오줌을 누고 내려온다. 나의 이 산에 대한 분한 감정이 풀릴 수 있기를.<sup>4)</sup>

4) 위의 책, 21쪽, “然華蓋能妒予, 不能禁予不看風雨之華蓋也, ...日日踏華蓋頂門

자연과의 거리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익살맞기까지 한 이런 행동에서 자연은 이제 자연의 범주에 속해 있지 않다. 자연은 일 상에서 쉽게 부딪칠 수 있는 사소한 대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류 할 수 있는 한 대상일 뿐이다. 아래 <仙岩>은 그러한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한 예이다.

샘과 돌이 기이하게 된 것은 그것이 충명하여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힘을 썼기 때문이다. 샘은 샘에 안주하지 않고 풀쩍 뛰어 폭포가 되었다. 石梁 폭포가 말했다. “나는 강을 놀라게 하고, 또 우뢰를 놀리니 내가 최고 지!” 大龍湫 폭포가 말했다. “무릇 廬山의 자식과 九華山 혈육들이 일어나 다투려고 어떻게 절벽을 이용하겠는가? 부질 없는 행동으로 불쌍히 여기 지 않을까?” 仙巖이 말했다. “이것은 그 조상을 속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최고의 자리에 나를 추대하려고 하는데, 어찌 분발하여 집안을 일으키 려고 하지 않는가?” ...폭포는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기세를 더하여 잔인한 비바람으로 사람을 휘돌릴 정도로 몰아치고, 부르짖기도 다그치 기도 하며 마치 사람을 한 순간이라도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다. 내가 말했다. “그대는 그러지 마오 내가 술을 한 잔 권하겠네 三伏에도 옛 비단옷 입고 그대에게 흰 죽을 올리겠네.” ...이에 비가 점차 그치고, 폭포의 노여 움도 다소 누그러졌다.<sup>5)</sup>

의인화된 사물들이 서로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성난 듯한 폭포를 달래려고 술잔을 기울이는 행위 등에서 자연은 더 이상 먼 이상의 세계가 아니라, 함께 놀고 즐기는 친근한 한 대상에 불과하다. 자연에 생명을 불

歌呼笑罵，醉則遺溲而去 吾之憤憤於茲山者 庶有馮乎”

- 5) 위의 책, 21쪽, “泉石之奇, 蓋泉石之聰明強有力所自致者 泉不安于泉 躍而爲瀑布. 石梁曰吾以之爲驚河, 吾以之爲狎雷, 而我其雄哉 大龍湫曰夫匡氏之子, 九華之生, 將起而角之 焉用此壁立爲? 夫不有空行而天弔者耶? 仙岩曰是誣其祖矣 戴鼎盛以席垂成, 胡不起家自奮發也. ...而瀑以爲侮予, 遂盛氣相加, 腥風惡雨, 撲人旋舞, 且呼且逼, 似不欲寓人一瞬者 予曰子母然, 我勸爾杯酒 三伏月 還當著故絹衣, 向君從容食白粥也. ...於是雨漸撤而瀑怒稍戢”

어 넣어 서로 대화하는 이 모습은 자연에 대한 자아의 우위에서 가능할 터이다. 자연을 인간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에 감정을 부여하는 이런 자아 중심적 사고는 이 작품의 말미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산수유기와는 부합되지 않을 듯한 의론문 삽입이 바로 그것이다.

外史氏가 말한다. 大羅山의 남쪽에 스물 여섯 개의 福地가 있는데, 仙岩인가? ...산수는 신령스런 물건이라, 그 생장과 막힘과 통함은 각각 때가 있다. 褒姒 외에 西施가 있고, 西施 외에 또 飛燕이 있으니, 천년이 지난 뒤 仙岩이 없어지면 王導와 謝安을 아쉬워하면서 나를 아쉬워하지 않을지 나 또한 어떻게 알겠는가?<sup>6)</sup>

역사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의론문은 이 글의 작자인 왕사임의 주장을 확증하는 기능을 한다. 앞의 작품에서 본 자연을 관찰하고 자신의 사적 견해를 밝히는 데서 나아가 이 의론문은 그것을 공적으로 역사화하고 객관화 한다. 의론문이 역사적인 사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왕사임의 의견은 여기서 객관성을 담보한다. 왕사임은 자연을 매개로 자신의 주장과 철학을 논증하고자 한다.

#### 나. 現實 意識의 強調

일여덟 살 때 나는 釣臺를 지나다 어르신이 嚴子陵의 일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를 본받으려고 했다. ...엄자릉 선생의 사당에 숙연한 자세로 들어섰다. 오래된 측백나무와 찬 바람, 강 사이 초록빛 물결, 그 기상 바르고 거룩하여, 雲臺를 굽어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客星亭에서 오른쪽으로 스무 구비 남짓 돌아 西臺에 오르니, ‘留鼎一絲’(사직에 한 정기를 남기다)라 적힌 亭자가 나왔다. 다시 산등성이에서 말을 타고 東臺를 지나니 ‘垂竿百尺’(無慾을 낚시대에 깊이 드리우다)이라 적힌 정자가 나

6) 위의 책, 2쪽, “外史氏曰, 大羅山之南有二十六服地, 其仙岩耶? ...夫山水靈物也, 其生長否泰各有時, 褒姒之外有夷施, 夷施之外復有飛燕, 吾又惡知千載之下, 仙岩之外, 不以悵王, 謝者而悵子也?”

왔다. 동대에 붙은 우뚝 솟은 작은 산을 조심스레 바라다보니, 한 石筍이 깊은 골짜기에서 불쑥 튀어 나와, 올려다보는 자세가 오만한 것이 자못 선생의 수족 같았다. 비탈길 가운데는 노송과 고목이 있고, 바람처럼 서늘한 기개가 느껴졌다. 이 두 누대는 아마도 당시 세속을 초탈한 곳으로, 텅빈 낚시 바늘에 無心を 낚으니, 꼭 방어와 잉어를 원하지는 않았을 터, 세상이 변했다고 신분의 고하에 얽매이지 않았다.<sup>7)</sup>

위는 <釣臺>라는 작품이다. 東漢의 유명한 高士인 嚴子陵이 낚시를 했다고 유명해진 이 조대에는 엄자릉의 사당이 있다. 엄자릉은 청고한 인품을 지닌 은일자이다. 그 높은 선비의 사당에 들어 갈 때 묘사된 자연 경물과 엄자릉의 모습은 ‘노송과 고목, 바람처럼 서늘한 기개’로 절묘하게 잘 표현되고 있다. 당시 관리들은 엄자릉의 고결한 인품을 ‘留鼎一絲나 ‘垂竿百尺’이라는 편액을 만들어 높이 평가하지만, 이것이 그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왕사임은 생각한다. 漢 光武帝와의 옛 친구로 여전히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 황제의 배에 다리를 올리고 잤던 사건에서가 아니라, 엄자릉의 위대함은 선비로서 지녀야 할 끈고 맑은 정신과 세속을 초탈하여 살아가는 모습에 있다<sup>8)</sup>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 그를 숭배 대상으로 만든, “몸은 관리 생활을 하면서, 말만 늘 관직에서 벗어나고 싶다”<sup>9)</sup>고 말하는 名利를 좇는 속물 관리들에게 왕사임은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그는 엄자릉의 평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한다.

7) 위의 책, 27쪽, “七八歲時, 過釣臺, 聽大人言子陵事, 心私儀之. ... 肅入先生祠, 古柏陰風, 夾江滴翠, 氣象整峻, 有俯視雲臺之意. 由客星亭右, 逕二十餘折, 上西臺, 亭曰留鼎一絲, 復從龍脊上騎過東臺, 亭曰垂竿百尺. 附東臺一平嶼, 陡削畏眺, 一石筍橫起幽澗. 蹇仰恣傲, 頗似先生手足. 磴道俱老松古木, 風冷骨脾, 此兩臺者或當日振衣之所, 空鉤意釣, 何必魴鯉, 吾不以滄桑泥高下也.”

8) 상동, “夫子陵之高, 豈在一加帝腹, 及賣菜求益數語乎. 人止一生, 士各有志.”

9) 상동, “身每在官中, 而言每在官外也.”

이상하게 엄자릉은 살아서는 七里灘의 밝은 달 아래서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죽어서는 많은 동료 관리들에 의해 시끄럽기만 했으니, 자릉은 고달프도다. 그러면 그의 편액의 글을 다 없앨 것인가? ‘山高水長이라는 范仲淹의 한 편액만 있으면 될 터이다.’<sup>10)</sup>

이 작품에는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깔려 있다. 왕사임은 자연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 속에서 현실을 꼬집어내어, 자연에까지 영향을 미친 관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자연은 여기서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현실 인식의 표출 수단이 된다. 그는 자연으로부터 역사적 의미를 불러온다.

가을과 겨울 사이 이곳의 경치는 더욱 아름다울 거라 생각한다. 내 집 안의 王子猷가 왜 흥이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눈 덮인 剡溪가 왕자유를 가로막지는 못하지만, 戴安道에게는 정말 못 견디는 일이다. 문인들이 경박한 행동으로 자주 다른 사람을 빌어 자신의 기분을 푸는데, 어떻게 그러할 수 있겠는가? ...다리 끝으로 배를 옮기고, 달빛 어린 모래 위에서 흐르는 물을 배개로 삼고, 돌로 양치질 하며 심신을 풀려고 했다. 뱃사공은 왜 저 강둑에 정박하지 않는지, 정말 이상하다는 듯 중얼중얼 혼잣말을 내뱉고 있었다.<sup>11)</sup>

위는 <剡溪>의 한 부분이다. 《世說新語》의 ‘雪夜에 戴安道를 방문한 이야기’<sup>12)</sup>를 하면서 문인들의 경솔한 행동을 비꼬고 질타하는 내용이다.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자 돌아오는’ 식의 자유분방한 생활방식은 모든 문인들이 갈구하는 바이지만, 그 흥의 대상인 상대방은 단지 그 사람의 기분을 푸는 한 도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사임은 자유

10) 상동, “咄咄子陵, 生得七里明月之眠, 死被萬人同堂之鬧, 子陵苦矣, 然則盡去其文乎? 曰山高水長, 存范仲淹一額可也”

11) 위의 책, 2쪽, “秋冬之際, 想更難爲懷, 不識吾家子猷, 何故興盡? 雪溪無妨子猷, 然大不堪戴, 文人薄行, 往往借他人爽厲心脾, 豈其可? ...移舟橋尾, 向月磧枕嗽取甘, 而舟子以爲何不傍彼岸, 方喃喃怪事我也”

12) 劉義慶 撰, 林東錫 譯, 《世說新語》, 敎學研究社, 1984년, 333쪽

분방하지만, 왕자유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 배를 다리 아래에 대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고, 돌로 양치질 하며 심신을 달래는 삶. 뱃사공이 이상하다는 듯 속으로 중얼대지만, 그는 이랑곳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자기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왕사임에게 자연은 이렇게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환기시키는 현실의 거울인 셈이다.

洗屐池에서 여러 층을 올라가니 薔薇洞이 나왔다. 謝安이 기생을 데리고 늘 여기서 놀았던 곳이다. 이백은 <憶東山> 詞에서 이렇게 읊었다. “꽃 피고 달 지고, 꽃은 몇 번 피고, 달은 누구의 집에 떨어질까?” 어떻게 소년의 경박함이 이렇까 했는데, 그 말에 일깨우는 바가 있고, 사안의 일을 환기시킬 수도 있어 그리 실망할 것까지는 없겠다. ...나는 생각한다. 산이 있는 곳은 우연히 네 모퉁이일 뿐이니, 어찌 동쪽을 좋아하고, 남쪽을 싫어했겠는가? ...내가 어떻게 曹娥江을 뒤엎어 두 글자의 억울함을 한 번에 씻어버릴 수 있을까? 山이면 되니, 東字만 없애버리면 되겠다.<sup>13)</sup>

위는 <東山>이다. 동산은 東晉 時期에 정치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謝安이 은거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사안은 기생을 데리고 놀았다. 왕사임은 이백의 <억동산>을 인용하면서 이백의 경솔함을 탓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이 사안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산에 그런 좋지 못한 역사가 묻어 있다는 사실에 왕사임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동산의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동산은 단지 산 그대로 두면 될 것이니, 왕사임은 ‘동산’에 ‘동’자를 제거하고 ‘산’한 자로만 하면 될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는다. 다소 해학적이지만, 좋지 못한 역사에 의해 더럽혀진 자연에 대한 인간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글이다.

13) 王思任 著, 앞의 책, 1쪽, “池上數級 得薔薇洞 文靖携妓常憩此 李供奉<憶東山>詞, 花開月落, 幾度誰家, 何物少年輕薄, 然致語大是曉語, 可以喚起文靖, 不必多憾. ...吾以爲山之所在, 偶然四隅耳. 何以喜東不喜南也? ...吾安能倒決曹江之水, 一爲洗清兩字冤也. 山可矣, 去其東而可矣.”

<동산>과 비슷한 성격의 작품으로 <天姥>가 있는데, 역시 이백의 시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이다.

會墅를 지나 太平庵으로 들어가 대나무를 보았다. 물통만큼 크고, 청록색의 곧은 대나무가 찬비를 맞아 대 잎이 깃털처럼 서로 달라붙어 마치 봉황 꼬리 같았다. 만약 나의 집에 이백 그루 남짓의 대나무를 심는다면 나는 두건과 바지를 벗어 던지고 그 아래로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흉취를 망치는 속물들이 절로 달려들지 않을 터. ... 桐柏宮은 천로산의 관문인데, 소위 이백이 말한 “산중턱에서 바다의 일출이 보이고”, “공중에서는 天鷄 우는 소리 들린다.”는 아마 그 정상을 말하는 듯하다. ... 이백이 왜 여기를 동경하였는지 모르겠다. 천태산과 천로산을 비교하면, 천로산은 천태산의 손자 뿐 썩 되는 작은 구릉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어찌 “힘이 五嶽을 뺀고 赤城山을 가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 山靈에게 힘이 있어 이백의 꿈에 연줄을 대고 기어 올라와, 꿈을 꾸자 시를 읊조리고, 시를 읊자 천로산과 천태산이 바로 자리를 앞다투었다. 오호라, 산이여 사람이여<sup>14)</sup>

왕사임은 이백의 <夢游天姥吟留別>을 인용하면서, 비록 꿈속이지만, 천로산에 대해 ‘힘은 오악을 뺀고 적성산을 뒤덮을 정도이다’와 같은 과장된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천로산은 천태산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백의 꿈속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백의 꿈속에 들어 갈 수 있는 힘과 연줄이 있으면, 천로산이 천태산과 비교되듯, 권력과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 인간 세상은 이백의 꿈속처럼 기회를 잘 엿보아 얼마든지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곳이다. 왕사임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은 세속적이고 속물적이지 않는, 곧은 대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산이여!, 사람이여!’는 바로 이 현실 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왕사임의 한탄과 절규

14) 위의 책, 3쪽, “過會墅, 入太平庵看竹, 俱汲桶大, 碧骨雨寒, 而毛葉離屬, 不啻雲鳳之尾, 使吾家林得百十木, 逃幘去禪其下, 自不來俗物敗人意也 ... 山是桐柏門戶, 所謂“半壁見海”, “空中聞雞”, 疑意其顛 ... 不知供奉何以神往? 天台如天姥者, 僅當兒孫內一魁父, 焉能“勢拔五嶽掩赤城”耶? 山靈有力, 夤緣入供奉之夢, 一夢而吟, 一吟而天姥與台山遂爭伯仲席. 嗟呼! 山哉! 人哉”

이다.

명망 있는 역사적 인물과 문인을 끌어와 왕사임은 그들을 현실에 빗댄다.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남아 있어야 할 자연에서 왕사임은 세속적인 온갖 모습들을 본다. 그는 자연 속에 숨겨진 진실을 캐내어, 이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그것을 해부하고 의미화 시킨다. 자연은 여기서 심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역사의 거울이 되는 셈이다.

## 2. 表現的 側面

막 불에서 나온 듯한 연지색의 노을, 앵무새 깃털처럼 푸르고, 까마귀 등처럼 검은 산들, 그 산 위에는 한 없이 펼쳐진 선홍색의 구름떼, 물에 반사되어 비단에 붉은 마노를 펼쳐놓은 듯한 하늘, 날이 어두워지자 연한 남색과 흰색 빛을 띠고 있는 모래사장과 심청색으로 변한 산들, 잘리고 부서진 거위 털 모양의 노을, 수정처럼 투명한 자줏빛 구름, 고기의 뱃살처럼 하얀 밤안개 등 위의 <소양>에서 묘사한 일몰의 경관은 작가의 섬세한 관찰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아름다운 묘사가 왕사임의 유기 소품문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왕사임은 다양한 비유, 신선한 표현과 수사로 자연을 생동감 있게 잘 그려낸 작가이다.

曹娥江에 배를 띄웠는데, 거친 물결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三界地에 막 다다르니, 강가의 경치가 우리를 반기고, 漁火와 마을 등불이 흰 달빛과 위아래로 비치고, 밝게 빛나는 모래, 고요한 산들, 개짓는 소리는 표범 소리 같다. ...높은 산과 좁다란 언덕, 빼곡한 푸른 나무와 붉은 꽃들, 흔들리는 배에 들려오는 새소리는 작지만 또렷하다. 소리 한 번 낼 때마다 못산들은 메아리친다. ...배가 畫圖山을 지나자 난초 분재 같은 경치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온갖 골짜기들의 물이 서로 합쳐져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마치 諸侯들의 옷자락에서 구슬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 같았다. ...城 남쪽의 百丈橋는 날개를 펴고 무지개가 물을 마시는 듯하고, 剡溪의 물은 그 아래로 굽어 흐르는데, 번개처럼 빠르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흘러간다.<sup>15)</sup>

위의 <剡溪>를 보면, 자연을 묘사하는 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강가의 경치, 등불과 달, 표범 소리처럼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새소리 등 시각과 청각적인 표현이 잘 어우러져 있다. 또 畫圖山을 盆裁로 표현하고, 계곡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제후들이 행진할 때 옷자락에서 나는 구슬 소리와 같다거나, 다리를 비유하여 무지개가 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은 매우 기발하고 신선하다. 이런 표현들로 이 글은 힘과 활기가 넘치고,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같은 표현 수법은 왕사임의 여러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1) 다리를 뺀고 한 숲 자다가 약간 취기가 돌아 꿈을 꾸는데, 뱃사공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저 동산 좀 보시지요.” 산기슭과 기암들이 짐승이 쭈그리고 앉은 듯, 마치 陣地처럼 강을 지키고 있었다. ... 長松이 하늘을 수 놓고, 파도 소리 펄펄 끓는 듯하다.<sup>16)</sup>

2) 바다의 비는 사오월 경에는 부인의 노여움처럼 쉽게 멎하지만 풀어 지기는 어렵고, 또 불량 소년이 귀에 대고 맹세를 약속했다가 순식간에 번복하는 꼴이다. ...꼭대기 정자에 올라서서, 산과 바다의 구름을 보니 그렇게 바쁠 수가 없었다. 마치 여섯 나라에서 징집된 백만 기마병들이 갈림길에서 진시황과 전투를 벌이는 듯했다. 강물은 상자에서 금방 빼낸 칼처럼 그 광채가 현란하다.<sup>17)</sup>

15) 위의 책, 1-2쪽, “浮曹娥江上, 鐵面橫波 終不快意 將至三界址 江色狎人, 漁火村燈, 與白月相上下, 沙明山靜, 犬吠聲若豹 ... 山高岸束 斐綠疊丹 搖舟聽鳥 杳小清絕 每奏一音, 則千巒啾答. ... 過畫圖山, 是一蘭苕盆景. 自此萬壑相招赴海, 如群諸侯敲玉鳴裾. ... 城南百丈橋翼然虹飲 溪逗其下, 電流雷語”

16) 위의 책, <東山>, 1쪽, “伸脚一眠, 小醉而夢, 舟子突叫, 看東山. 山麓巉石獸蹲, 守江如拒, ... 長松綉天, 濤聲百沸.”

17) 위의 책, <華蓋>, 20-21쪽, “海雨在四五月間 如婦人之怒 易構而難解 又如少年無行子. 盟在耳門, 須與翻覆. ... 上顛亭, 看山海雲物忙甚, 似六國徵調百萬軍騎, 分路戰祖龍者, 大江乃抽匣之劍 光采陸離”

3) 靑田에서 삼십리를 가니 惡溪가 가지런히 툽처럼 벌어져 있고, ...(石門의) 모래는 명주처럼 맑고, 대나무가 빼곡하고, 검은 곰이 울부짖고, 원숭이와 새들이 사람을 보고는 도리어 괴이하게도 도망가지 않고, 두 벽은 삼으로 깎아 낸 듯 우뚝 솟아나 그 사이로 운기가 흘러가며 옥을 해대니 가기가 심뜩하였다.<sup>18)</sup>

4) 선암의 폭포가 이제야 나타났다. 폭포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배에서 나와, 마치 수많은 등불에서 하얀 불꽃을 재미 있게 토해내는 듯했다. 뜻밖에 내리는 눈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鐘鼓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한 듯했다. ...급히 달려 올라가는데, 葛衫에 알알이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운무에 흠뻑 젖어버렸다.<sup>19)</sup>

1)에서 짐승이 쭈그리고 앉은 듯한 산과 기암, 2)에서 여섯 나라의 백만 기마병들을 징집하여 진시황과 싸우는 듯한 비 개인 뒤의 구름, 상자에서 꺼낸 칼과 같은 강물, 3)에서 툽처럼 벌어진 계곡, 4)에서 불꽃과 같은 폭포 등 다양한 비유가 무엇보다 눈에 띈다. 이 같은 사물의 비유는 대체로 잘라적이고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경우가 많아 사물을 생동감 있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더욱이 1)에서 뱃사공이 자신을 깨워 갑자기 동산을 보라고 하여 동산을 본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한 부분은 이 당시 소품문 작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방법으로, 이런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눈을 통해 묘사된 자연은 왕사임의 독특한 비유와 묘사에 의해 더욱 생동감을 더한다. 또한 2)에서 노한 부인과 변덕 심한 소년에 비유한 바다의 비, 3)에서 절벽 사이로 흐르는 뭇가 낮설고 괴기스러운 광경 묘사, 그리고 4)에서 자신의 배에서 나온다는 폭포 등 기발하고 신선한 표현으로 왕사임은 자연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채롭게 그려낸다. 이외에

18) 위의 책, <石門>, 23쪽, “去靑田三十里, 惡溪齒齒鋸張, ...磧明羅縠, 箚棘密蒙, 玄熊啼號, 猿鳥見人, 反怪立不去, 兩壁劖峙, 雲氣往來, 譏呵甚憚.”

19) 위의 책, <仙岩>, 21-22쪽, “於是乎有仙岩之瀑, 瀑不他藉, 賴從已腹中出, 如千本火樹, 逆吐銀花, 突如其來, 煙呼雪喊, 鼓鐵亂鈞 ... 急走上, 而葛衫眼眼粟寒, 鬚髮是根, 俱爲霧雲泚盡.”

“산은 죽순 껍질을 벗겨 놓은 듯하고, 고동의 끝부분 같기도 하다”, “앞 봉우리는 절구 위에 한 네모난 돌이 위태롭게 놓여 있는 듯하다.”<sup>20)</sup> 또 험준한 산세를 鐘의 손잡이가 끊어질듯 하다든지, 계곡을 보고 무기고와 철모 같다<sup>21)</sup>라고 하는 등의 표현에서도 역시 그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明代 陸雲龍은 <선암>에 대해 “(<선암>의) 묘사가 마치 살아 있는 듯하다. 바로 산의 정취와 물의 모양, 인간의 거동이 모두 내 눈 앞에 펼쳐진 것만 같다.”<sup>22)</sup>고 평하고 있다. 육운용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과 사실감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4)에서 보듯 한기로 갈삼에 송알송알 돌아난 소름, 흠뻑 젖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등 세밀한 관찰로 획득한 이러한 표현은 바로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것이 객관적 대상의 께진한 묘사와 재현은 아니지만, 손에 잡힐 듯한, 형상이 눈앞에 떠오를 듯한 질감과 양태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각적이고 사실적이다.

왕사임의 산수유기는 수사와 표현이 그야말로 매우 독특하다. 그의 언어들은 기발하고 신선하다. 자연에 생기를 불어 넣어 서로 대화를 나누듯, 그의 언어는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과 힘이 넘친다. 매우 남성적인 표현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문장이 활기차다.

육운용은 <王季重先生小品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山水에서 性靈을 얻으려는데 그 성령을 산수가 열어주지는 않는다. 선생은 단지 몇 글자만으로 그 신령스러움을 새기고, 오묘함을 밝히고, 유심한 것을 드러내고, 기험함을 찾아내어, 수려하고 진기한 표현들로 최정상을 차지하였다.<sup>23)</sup>

20) 王思任 撰, 앞의 책, <天姥>, 3쪽, “山如剝笋根 又如旋螺頂 / <南明>, 2쪽, “前峰如臼上危置一方石, 是仙人博局 五斛玉塵”

21) 위의 책, <南明>, 2쪽, “望見二山, 追蠡之痕猶在, 而淵填之聲隱然也 ... 從鍾鼓山取谿入谷, 是武庫鐵帽 堆圍多多許”

22) 明, 何偉然 等 撰, 陸雲龍 評, 《皇明十六名家小品》32卷, 集378-369쪽, “記如寫生, 直似山情山態人之舉動畢具于吾前”

23) 위의 책, 集378-335쪽, “而其借靈山川者, 又非山川開其性靈 先生直以片字鏤其

K C I

---

神，闢其奧，抉其幽，鑿其險，秀色瑰奇，踞其巔矣”

### Ⅲ. 맺음말

본 논문은 두 편으로 기획되었는데, 전편에서는 왕사임의 생애와 문예관, 그리고 《유환》의 창작 동기 및 평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그의 산수유기 대표 모음집인 《유환》에 수록된 개별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왕사임의 산수유기의 내용과 형식상의 특색을 추출하고자 했다.

왕사임은 산수자연을 단지 심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않는다. <소양>에서 일몰의 광경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내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그저 찬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연을 찬찬히 바라보고 섬세하게 관찰하여 자연의 신비를 생각하고 되물으며, 현실 세계와 비교해보기도 한다. 자연은 왕사임에게 하나의 관찰과 해석의 대상이다. 때문에 자연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섬세하다. 자연을 가까운 친구 사이처럼 대하듯, 자연에 인간의 감정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거리감을 없애버린다. 자연은 먼 곳에 존재하는 이상의 세계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한 대상으로 간주된다. 자연에 대한 신비감은 여기서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연에 대한 '나'의 생각과 관점을 강조한다. 이런 왕사임 자신의 사적 주장은 나아가 <선암>에서처럼 의문문 삽입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해석을 공적인 논의로 이끌어 역사화하고 객관화 한다.

왕사임은 이런 관찰과 해석에서 더 나아가 자연 속에서 현실을 끄집어 내는 더욱 적극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아름답고 청정해야 할 자연에서 왕사임은 온갖 세속적인 모습들을 들여다본다. <조대>에서 엄지릉의 편액을 통해 속물 관리들의 행태를 보고, <천로>에서는 기회를 엿보아 얼마든지 권세와 명성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을 본다. 이름난 정치가와 문인들을 비판하고 경계심을 일깨우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환기시키는 왕사임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역사와 진리를 캐는 현실 인식의 표출 수단이 된다.

왕사임은 독특한 표현 수법으로 자연을 묘사하는 작가이다. <소양>에서 보았듯이 그는 다양한 비유를 잘 운용하는 작가이다. 기발한 비유를 통해 사물을 다채롭게 표현할 뿐 아니라, 신선한 언어를 통해 자연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자연 경관이 살아 있는 듯 매우 감각적이고 역동적이며, 그 작품들은 산수화로 보면 목직한 필묵을 연상케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왕사임의 삶과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편에 걸쳐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듯하다. 특히 왕사임 산수유기와 이 시대 다른 작가들의 그것과 비교, 통시적인 관점에서 산수유기의 흐름 파악, 왕사임 산수유기 소품문이 이 시대에 가져온 문학상의 변화에 대한 논의 등은 다음의 연구에서 반드시 규명하여야 할 과제들이다.

### <參考文獻>

- 劉義慶 撰, 林東錫 譯, 《世說新語》, 教學研究社, 1984년  
 王思任 撰, 《游喚》(《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91년  
 明·何偉然 等撰, 陸雲龍 評, 《皇明十六名家小品》(《四庫全書存目叢書》,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編, 齊魯書社, 1997년  
 王思任 著, 任遠 校點, 《王季重十種》, 浙江古籍出版社, 1987년  
 王思任 撰, 《王季重雜著》上·下, 偉文圖書出版社, 1977년  
 王思任 著, 蔣金德 點校, 《文飯小品》, 岳麓書社, 1989년  
 李鳴 選注, 《王季重小品》, 文化藝術出版社, 1996년  
 陳萬益 著, 《晚明小品與明季文人生活》, 大安出版社, 1988년  
 周明初 著, 《晚明士人心態及文學個案》, 東方出版社, 1997년  
 羅筠筠 著, 《靈與趣的意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년  
 尹恭弘 著, 《小品高潮與晚明文化》, 華文出版社, 2001년  
 金元東, <明末 王思任의 삶과 文藝觀, 그리고 山水遊記集 《游喚》>, 《中國

語文學誌》제15집, 2004. 6.

### <中文提要>

晚明是中國文學史上一個重要的時期。在社會文化的大變化中，明文人有了新的文學潮流，其中小品文有着新的文學走向。這時期的小品文在文體與內容方面出現深刻變化，從明中葉吸引文人的關心的小品文到晚明形成強大的創作潮流。特地山水遊記小品文就是。這意味着山水遊記小品文在中國散文文學史上的重大的意義。

王思任不但是代表晚明的小品文作家，也是山水遊記小品文的傑出作家之一。他的《游喚》是其代表作，也是一部山水遊記上的重要的作品集。在此篇筆者以《游喚》的內容與形式上的審美特色為中心討論。《游喚》裏收錄13篇作品，分析對象是11篇。

王思任對山水自然顯出獨特視角。在他的視角看來，山水自然非但是審美的對象，也是解釋與分析的對象。因此自然逐漸近於世俗，失去神秘色彩。〈華蓋〉，〈仙巖〉等作品如此。王思任強調現實意識。他在美麗而清淨的自然裏發見世俗的樣態。王思任通過自然不看自然風光，要尋找藏在自然裏面的醜態。在王思任看來，自然山水不是單純的山水景觀，而是含有歷史與真理的。〈釣臺〉，〈剡溪〉，〈天姥〉等作品如此。

王思任的自然描寫手法頗有特色。其作品描繪極為生動的，活潑的，因為他用多樣的比喻和言語描寫山水自然。

筆者將來要對在此篇論文不充分的論議進行深入的研究。

주제어: 自我 意識, 심미, 해석, 현실, 意味化, 생동감, 감각적, 비유